

그런 다음 그녀는 그만 졸도하고 말았다네. 우리는 그녀에게 달려가, 의식을 회복시킨 뒤, 풀은 살아 있고, 충독이 그를 돌보고 있다고 안심시켜주었어. 마르그리트는 때때로 긴 혼수상태에 빠지는 친구를 돌보기 위해 겨우 정신을 차렸네. 라 투르 부인은 이 잔인한 고통 속에서 밤을 지새웠지. 그렇게 오랜 세월 그 고통이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어떤 아픔도 어머니로서의 아픔에는 미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어. 라 투르 부인은 의식을 되찾고는 초점 없는 눈을 돌려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네. 그녀의 친구와 내가 손을 붙잡아 보았지만 헛된 일이었고, 애정을 한가득 담아 이름을 불러도 소용없었지. 우리가 오래도록 나뉘온 애정표시에도 무감각해 보였고, 먹먹한 가슴에서는 희미한 신음소리만 새어나왔다네.

아침이 되자마자 풀이 가마에 누운 채로 실려 왔네. 기운을 차리고 몸도 움직였으나, 입 밖으로는 말 한 마디 내지 못했지. 자기 어머니와 라 투르 부인을 대면하자, 처음에 나는 그것이 두려웠었는데만, 오히려 그때까지 별의별 걱정을 했던 것 치고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낳았다네. 그 애처로운 두 어머니의 얼굴에 위로의 빛이 드리운 게야. 두 부인은 각자 풀의 곁에 다가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네. 그러자 원통함이 극에 달해 그때껏 억지로 눌러왔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 곧 풀도 두 어머니와 함께 눈물을 섞었네. 그렇게 자연은 비운에 빠진 이 세 사람의 아픔을 덜어주었